

이병헌 “전라도 사투리, 영어 만큼 어려웠다”

영화 '내부자들'로 자존심 회복 나서

뒤에서 나라 움직이는 권력들의 이야기 그들에 배신당해 복수 꿈꾸는 안상구역 이 영화처럼 많은 애드리브는 처음이다

배우 이병헌은 노련했다. 한 편의 영화에서 다채로운 개성과 매력을 유연하게 드러낼 만한 실력을 갖춘 배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이병헌은 영화 '내부자들'(감독 우민호·제작 내부자들문화전문회사)을 통해 자신의 진가를 당당하게 입증했다. 연기에 관한 한 흠잡을 데 없는 실력자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증명했다.

이병헌이 지난해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준비해온 '내부자들'이 2일 언론시사회를 통해 이야기를 공개했다. 당초 올해 상반기 개봉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11월19일이 디데이로 정해졌다. 그 사이 영화를 둘러싸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고 한편으로 긍정적인 예측도 나왔다. 개봉 전부터 이렇게 다양한 '입소문'을 탄 영화는 드물다.

아직 '내부자들'의 흥행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하지만 이병헌의 활약만 놓고 보면, 그는 2005년 출연한 '달콤한 인생' 이후 꼭 10년 만에 오래도록 기억될 자신만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빚어냈다. 올해 여름 개봉한 '헬너:칼의 기억'으로 맞본 흥행 실패와 앞서 지난해 겪은 스캔들의 여파까지 말끔히 씻어 낼 태세다.

영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움직이

는 권력들에 관한 이야기다. 언론(백윤식)과 정치(이경영), 재벌(김홍파)이 한데 얽혀 잔혹한 먹이사슬을 이루는 가운데 이병헌은 이들 권력의 심부름꾼인 주인공 안상구역 역을 맡았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권력에 빌붙은 정치깡패'다. 이용당하고 배신당해 복수를 꿈꾼다. 일면 전형적인 구조이지만, 이 평범한 이야기를 긴박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은 한 편의 영화에서 현란하게 변신을 거듭한 이병헌의 활약에서 나온다.

이병헌은 “여러 영화를 해봤지만 이처럼 많은 애드리브는 처음”이라며 “모든 캐릭터의 힘이 강해, 관객이 쉬어갈 만한 역할도 필요할 것 같았고, 그게 내 몫이라고 여겼다”고 밝혔다. 잔인하고 처절하지만 귀엽기도 한 그의 매력적인 캐릭터는 이런 계산으로 탄생했다.

이병헌의 맹활약에는 검사 역할을 맡은 상대 배우 조승우를 빼놓기 어렵다. 두 배우는 이야기를 정확히 반반씩 책임지고, 서로 다른 개성으로 맞붙지만, 그 대결은 완벽하게 어우러진다. 시종일관 팽팽하게 펼쳐진 '무승부 연기 대전'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병헌이 전라남도 사투리로 모든 대사를 소화한 점도 이색적이다. 인물의 특색을 도드라지게 하려는 선택으로, 이미 할리우드 영화에서 활약하며 인정받은 이병헌의 언어 구사력은 남달랐다.

“영어보다 쉽겠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사투리 연기는 만만치 않았다”며 “전라도 지역 연극배우에게 사전 지도를 받았고, 촬영을 시작하고는 같은 지역 출신 스태프에게 일일이 대사 검사와 교정을 받았다”고 돌아섰다.



19일 개봉하는 영화 '내부자들'을 통해 다시 대중 앞에 나서는 이병헌이 2일 영화의 언론시사회에서 첫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일련의 사건에 휘말리면서 개봉이 연기되는 등 시련을 겪었지만 이번 작품에서 이병헌은 오롯이 연기만으로 이야기했다.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1년 11월 3일>



1991년 '개구리소년'들의 실종사건으로 온 국민이 아파했다. 이듬해 개봉한 영화 '돌아오라 개구리소년'은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 환기시켰다. 스포츠동아DB

실종된 개구리소년 부모들 KBS 가요무대에서 도움 호소

1일 KBS 2TV 주말극 '부탁해요, 엄마'에는 이색적인 장면이 담겼다. 1일부터 15일까지 통계청이 진행하는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방문조사원이 등장한 것이다. 스텝이 짧은 장면이기는 했지만 KBS는 “5년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하나의 행사인 만큼 드라마를 통해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드라마를 통해 공익성 가치를 담은 셈이다. 이처럼 TV는 당대의 사회현실에서 멀어질 수 없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심사를 더욱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다.

1991년 오늘, KBS 1TV '가요무대'에 이른바 '개구리소년'들의 부모들이 출연해 애끓는 아픔을 드러냈다. 그해 3월26일 대구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가 재학 중이던 다섯명의 어린이가 외통산으로 돌봉양을 주우려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실종돼 8개월이 지나도록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어 국민적 안타까움이 가득하던 때였다. 부모들은 '가요무대'를 통해 아이들의 외모 특성을 설명하면서 아이들을 찾기 위한 전 국민적 도움과 관심을 호소해 눈물을 자아냈다. 평화방송(PBC)도 '행복이 가득한 곳에'를 통해 매일 실종 어린이들을 찾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처럼 당시 방송가와 가요계, 영화계 모두 '개구리소년'들을 찾기 위한 캠페인에 적극 나섰다. '개구리소년'이라는 노래(박성미)가 나오기도 했고, 소년들을 찾는 캠페인을 알리는 영상을 담은 비디오 물도 잇따라 제작됐다. 광고업계에서는 광고 대상 제품의 겹면에 아이들의 사진을 박아 판매하며 캠페인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듬해에는 영화 '돌아오라 개구리소년'이라는 작품이 제작돼 10월 개봉하기도 했다. 1993년에는 KBS 1TV '사진 25시'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이 다시 사건에 카메라 초점을 맞췄다. 덕분에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다시 한 번 일었다.

사건은 발생 20여년 후에도 잊혀지지 않아서 2003년 가수 MC스나이퍼는 '개구리소년'이라는 노래를 내놓기도 했다. 21년째이던 2011년 박용우와 류승룡 등이 주연한 영화 '아이들'도 나왔다. 하지만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2002년 9월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의 한 공사장에서 4구의 유골과 5점례의 신발이 발견됐다. 경찰은 경북대에 유골에 대한 감정을 의뢰해 사라졌던 다섯 아이들이 끝내 타살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건은 2006년 3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았다.

여고생 배우 김유정·김소현, 스크린 대세로...

김유정 '사랑하기 때문에'서 주연 활약 김소현 '순정' 이어 '덕혜옹주' 캐스팅

여고생 연기자 김유정과 김소현의 스크린 활약이 공격적이다. 고교 1년생인 이들이 드라마를 넘어 최근 영화로 그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덕분에 영화의 여주인공 캐릭터가 다양해지면서 20~30대 여배우들의 강력한 경쟁자로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다.

김유정은 최근 판타지 멜로 영화 '사랑하기 때문에' 촬영을 마무리했다. 10월 중순 개봉한 '비밀'에 이어 두 번째 주연작이다. 누군가의 아역이나 조연이 아닌 이야기를 이끄는 여주인공이란 점에서 관심과 시선을 더한다. 김소현의 활약도 비슷하다. 내년 초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 영화 '순정'의 촬영을 마친 그는 최근 허진호 감독이 연출하고 손예진, 박해일이 주연하는 '덕혜옹주'에도 캐스팅됐다. 공백 없이 출연편수를 늘리는 왕성한 활동상이다.

이들은 로맨스나 스릴러, 시대극을 넘나들면서 장르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김유정은 미스터리 스릴러 '비밀'에서 성동일, 손호준과 연기 대결을 벌였다. 사건의 핵심에 놓인 인물이자, 갈등을 직접 해결하는 캐릭터로 10대 연기자에게 갖는 대중의 편견을 과감하게 깬다는 평가도 받았다. '비밀'의 박은경 감독은 “어린 학생이 연기하기에 굉장히 복잡한 역할인데도 김유정은 손색없이 해냈다”며 “마치 배우로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이들은 여배우라면 누구나 욕심 내는 로맨스 장르의 주역이기도 하다. 김소현이 주연한 '순정'은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소년과 소녀의 첫사랑을 그리고 있다. 상대역은 인기그룹 엑소의 멤버이자 연기자인 도경수. 오랜만의 순수한 로맨스 장르로 관심을 더한다.

김유정이 차태현과 호흡을 맞춘 '사랑하기 때문에'도 비슷하다. 성동일, 배성우, 임주환 등이 출연하지만 로맨스의 뒀은 김유정이 맡았다.

■ 빅마우스

- “내가 너무 뒤떨어져 보인다.” (슈퍼주니어 강인) 1일 방송된 SBS 라디오 파워FM '김창렬의 올드스쿨' 스페셜 DJ로 나서. 연예인 친구들과 같이 다니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 “실제로 술 마시고 찍어 잘 나온 것 같다.” (연기자 김희정) 2일 웹드라마 '맛있는 연애' 제작 발표회에서. 상대역인 B1A4 공찬과 맥주를 마시며 실제 연인처럼 싸운 장면의 뒷이야기를 털어놓으며.
- “나이 많다고 책임감 많고 지혜로운 건 아니지.” (누리꾼 ohji****) 28일 만 21세 나이에 결혼하는 유키스 출신 동호가 SNS에 결혼반지 사진을 공개하며 “어린 나이지말 잘 살겠다”는 말에 응원하며.

편집 | 김대기 기자 bong82@donga.com

천기를 타고난 정통명인 강민정 원장



강서구 화곡동에 가면 죽집계 점사(신점)를 잘 알고 한양구 잘하는 천상보살(강민정)이 있다. 먼저 그녀를 만나면 선한 이웃집 아줌마 같은 인상이자, 무속인이기 이전에 어떤 사연이든 털어놓고 싶은 편안함을 주는 우리시대의 꼭 필요한 구세주가 아닌가 싶다. 그녀는 강남에서 법당을 모시고 중생을 제도하다, 신령님의 계시를 받고 강서구 화

곡동으로 법당을 옮겨, 서울의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자 왔다. “우리네 무속인의 가장 큰 역할은 고통 받는 분들을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영리를 탐하지 않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성실성

게 도와준 적도 있고, 부동산 매매건도 남다른 신통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사례를 보면 그녀의 신통하고 영험함이 가히 소름이 끼칠 정도다. 요즘에는 가정불화, 애정, 사주관상, 자녀진학, 조상묘, 사업운, 승진, 취직,

그녀는 재물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일부 무당들이 하는 거액의 굿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차이다. 이는 바로 그녀의 자질과 인품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그녀가 더욱 유명한 이유는 손님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어떤 사연으로

천기를 타고난 전통 무속인, 신점 병점·자녀방황 가정불화·혼인애정·사업·삼신

을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알면서, 불안정한 현대인의 삶을 살아 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한다. 그 예로 정신병으로 입원했던 환자를 데려와 환자 고향에 치유했고, 온몸이 아픈 원인모를 환자의 병명을 집어낸 적도 있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의 방황하는 끼를 잡아 그가정에 편안함을 안겨준 바도 있다. 한번은 사업파산으로 찾아온 손님을 다시 일어나

매매 등 여러 이유로 예약이 밀릴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그녀는 점사를 볼때 방울 염전 간혹 몸에 염주를 걸고 토속적인 신령의 신을 받아 점을 본다. 신이 실리면 그 영험함은 가히 신력이다. 항상 신력이 실려있기 때문에 그녀의 점사는 정확하고 용하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이에 그녀는 모두가 다 모시는 신령님 덕분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듣고 유명한 사들 까지도 그녀에게 찾아와 문제를 해결해 간다.

왔는지를 알아내고 또 그사람의 성격까지를 개조시킨다는 것이다. 오늘도 그녀는 불치병에 시달리고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구제하는 길이 자기 몫이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한다. 그녀는 현재 무속협회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독자예약상담 : 02)2602-3078
042)384-0078
010-3384-0078
(강서구 화곡동 지하철 까치산역 부근)